

부화율 '뚝' 광주 우치동물원 금계·은계·백한 '조류 트리오'...심한 스트레스 알고보니



금계



은계

백한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인기 스타인 금계·은계·백한(닭목 꿩과) 등 '조류 트리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인공·자연 부화율이 지난해보다 30%

펜스 두드리고 떠드는 관람객...휴식·수면·산란 방해

돌멩이 '앙~대요'

가랑 떨어지면서 마치 아들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앞에 선 주눅 든 며느리 같은 모습이다.

조류 트리오의 경우 꼬마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육사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부화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일반적으로 조류의 산란이나 부화는 기온과 가장 밀접하다. 조류 산란사의 산란 시기를 지난 3~5월 평균 기온은 14.1도. 이는 지난해 12.7도보다 1.4도 높은 기온이다. 이들의 부화온도가 38.5도로, 기온이 높을수록 부화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하면 기온 변화는 부화율 저하의 원인이다.

일부 조류 전문가들은 잦은 비 때문에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지난 3개월간 평균 강수량은 73.7mm. 지난해는 이보다 0.09mm 적은 72.8mm였다. 평년 강수량은 79.4mm. 비가 내린 횟수도 지난해와 올해 모두 8.3일로 같았다. 이 때문에 비나 기온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관람객들의 지나친 관심과 수준 낮은 관람 태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이들 조류 사육사는 관람객들이 50cm~1m 앞에서 관람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다. 관람객들이 이들을 관람하면서 철재 펜스를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 등을 던지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쉬거나 잠잘 시간에 방해받으면 자연히 알을 적게 낳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화 환경도 나빠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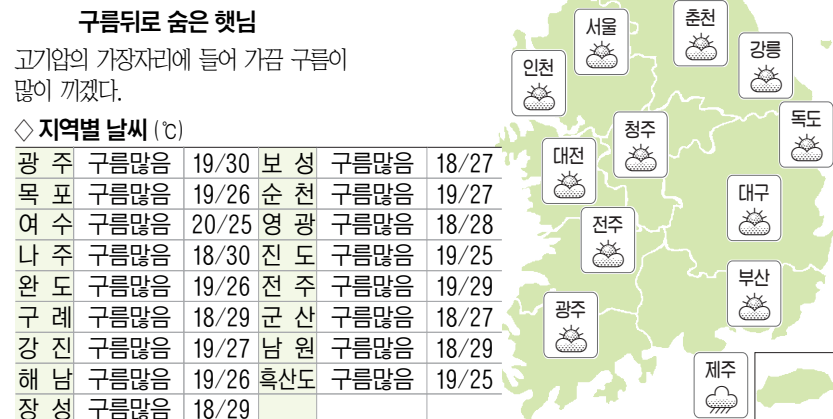
또한 조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이를 풍부하게 먹지 않게 되는데, 결국 영양분(칼슘 등) 부족으로 알 껍질이 약해지는 거소 부화율 하락의 원인이다.

호남대 이두표 생물학과 교수는 "기온의 변화는 아닌 것 같다. 어미의 경우 대부분 기온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체온조절을 하게 된다"며 "서식환경이나 먹이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라면, (외부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51, 달출 04:26, 달몰 18:46



구름위로 숨은 햇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9/30	보성	구름많음	18/27
목포	구름많음	19/26	순천	구름많음	19/27
여수	구름많음	20/25	영광	구름많음	18/28
나주	구름많음	18/30	진도	구름많음	19/25
완도	구름많음	19/26	전주	구름많음	19/29
구례	구름많음	18/29	군산	구름많음	18/27
강진	구름많음	19/27	남원	구름많음	18/29
해남	구름많음	19/26	축산도	구름많음	19/25
장성	구름많음	18/29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	남서	0.5
남해	남서	0.5	남서	0.5
서부	남서	0.5~1.5	남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69
운동	4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53	01:35
여수	18:52	13:20
	08:23	02:24
	20:58	14:22

◇주간 날씨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7/1(화)	2(수)	3(목)
날씨	☀	☀	☀	☀	☀	☀	☁
날씨	19/31	21/29	21/30	21/30	21/31	22/31	22/27

광주 가정법원 자문단체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설립해 달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에

광주 가정법원의 시민 자문단체가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설립을 요청했다. 광주 가정법원 시민사법 참여단은 25일 시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보호시설인 가정

'행복생활의 집'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민선 6기 광주시장 업무 인수를 위한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 지난 24일 설립 제안서를 게시했다. 가정 해체 등으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년법상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위기 청소년)에게 소규모 위탁가정 등 공동체 시설이나 기숙형 시설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특히 소년법 보호처분 가운데 6호에 해당하는 감호 위탁을 위한 시설 설립에 초점을 뒀다. 소년법 보호처분 1~5호는 귀가해 부모

들에게 보호받도록 하며 6호는 감호 위탁, 7호는 소년 의료보호 시설 위탁, 8~10호는 소년원 송치 등으로 분류된다. 감호 위탁 시설이란 소년원 송치나 귀가 처분을 받지 않은 소년들이 특정 기간 감호 처분을 받으며 머무는 곳이다. 광주 가정법원은 지난해 4월 광주시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감호 위탁 시설 설립도 추진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실

광주 북구청은 25일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함께 삼각초등학교에서 3·4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병언 '오른팔'

금수원 상무 체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정재진해운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수원 상무 이모(65)씨가 25일 체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따르면 이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이 뒤를 쫓아왔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한 물품은 없으며 이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시민단체 "세월호 아픔 함께 나누겠다"

광주YMCA에 성금·종이학 보내와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며 성금과 종이학을 접어 광주 시민단체에 보내왔다. 광주YMCA와 요코하마YMCA는 30여년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동일본 대지진 등과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 광주YMCA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망이 이뤄진다는 말이 있다"면서 "종이학과 성금을 보내면서 일본 사람들도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는 한국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달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www.oceanocc.co.kr

선불카드
할인판매

선불카드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기명1인	무기명1팀(전원)
주중/주말	40%	50%	40%

공통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중	66,000	18홀 기준
	주말(공휴일)	99,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1 6월 카트로 면제(4인18홀 라운딩시)
Event2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2만원/주말4만원(카트로 포함)

구매향의 061-536-3953